

##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지원 강화

### □ 중국, 와일드카드(Wild-Card)로 부상

- 2010년 2월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당선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향후 외교정책 중심축이 EU 또는 러시아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임.
-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빅토르 유셴코 전임 대통령의 서방편향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, 현재는 경제난 극복이 최대과제이므로, 자국의 경제이익을 위해 러시아와 EU사이에서 실리주의 노선을 따를 것으로 보임.
- 이러한 가운데, 최근 우크라이나 앞 경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EU 또는 러시아 이외의 새로운 와일드카드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.

### □ 야누코비치의 최대 당면과제는 경제난 극복

- 우크라이나는 2009년 -20.3%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, 예산적자는 GDP의 11.5% 규모인 데다, 총정부부채 역시 53.5% 증가한 약 377억 달러 기록하고 있음.

- 최근 임명된 아자로프 총리는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현대화를 위해서는 약 7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.

<표 1> 우크라이나 주요 거시경제지표

단위: %

구 분	2006	2007	2008	2009 <sup>e</sup>	2010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7.3	7.9	2.4	-15.0	2.5
산업생산증가율	5.7	10.3	-3.8	-23.4	5.0
재정수지/GDP	-0.6	-1.1	-1.5	-6.0	-5.0

자료: IMF, EIU.

<표 2> 주요 신용평가기관 등급

평가기관	2007	2008	2009
S & P <sup>(*)</sup>	BB-(Negative)	B(Negative)	CCC+(Stable)
Moody's	B1(Positive)	B1(Stable)	B2(Stable)
Fitch	BB-(Positive)	B+(Negative)	B-(Negative)

주: 2010년 초 S&P는 종전 CCC+에서 B-으로 상향조정, Fitch도 Negative에서 Stable로 전망을 상향조정

자료: 각 기관 발표 자료.

## □ 러시아와 EU는 내부 경제난 해결 노력 중

- 향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경제지원국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이나, 러시아는 현재 해결해야 할 내부 경제문제가 산적해 있고, 지난 수년간 유셴코 정부의 서방편향 외교정책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의 경제협력관계가 냉각되어 왔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에너지부문 등에서 보다 많은 경제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.
- 한편, EU 또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리스, 루마니아, 불가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 등 EU 가맹국들의 경제위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입장이고, 부족한 EU 역내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비가맹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지원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임.

- 이러한 가운데, 우크라이나는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시도 중이며, 이는 최근 중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몰도바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임.

- 중국은 2009년 중반, 몰도바에 1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한 바 있음.<sup>1)</sup>

#### □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른 우크라이나-중국의 전략파트너 관계

- 중국의 이전 CIS 국가 앞 경제지원은 자원확보가 주된 목적이었음.
  - 2009년 12월,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 정부사이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동부 가스매장지로부터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을 경유, 중국 북서부 Xinjiang 지역으로의 가스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관공사 기공식이 열림.
  - 중국정부는 아프리카,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석유, 코발트, 백금, 목재, 다이아몬드 등 자원확보를 위해 이들 지역 나라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- 우크라이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지역내 자원개발 이권 확보라기 보다는 향후 저비용 인프라 건설에서의 노하우 수출, 가시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영 전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참여 등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  - 심각한 예산재원 부족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전 정부에서 금지하였던 전략기업에 대한 민영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주요 전략 기업들의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함.

1) 몰도바의 경제규모가 약 8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, 이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 지원임. 동 차관은 중국 건설 회사인 중국 해외엔지니어링 그룹(China Overseas Engineering Group)을 통해 지원될 예정

- 주요 정부지분 매각 예정기업으로는, 비행기·헬리콥터용 엔진제조 기업인 Motor-Sich, 세계적인 티타늄 채굴·제조기업인 티탄 우크라이나, 원자력 발전업체인 EnergoAtom과 우크라이나 최대 유무선 통신업체인 우크라이나텔레콤, 대형화학기업인 Odessa Port Plant 등이 있음.
- 우크라이나 민영화 대상기업들에 대해 러시아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, 중국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임.

#### □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경제협력 확대 추세

- 시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경제지원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파트너인 러시아나 EU가 경제지원 능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대안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- 특히 EU, IMF 등 서방으로부터 자금지원 조건이 인권문제, 환경·사회 제도 개선 요구, 재정적자 축소 등 상당히 까다로운데 반해, 중국으로부터는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자금지원 조건으로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음.
- 2008년 이래 중국과 우크라이나간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, 향후 이러한 교역확대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.
-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현 야누코비치 정부하에서도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제조업, 과학, 기술, 무역, 문화 등에서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- 원자력분야에서 중국 광둥성 원자력에너지 발전 공사(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Company)와 우크라이나 국영원자력 에너지공사(Ukrainian National Nuclear Generating Corporation Energoatom)는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맺은 바 있음.

□ 중국, 러시아의 CIS 내 지정학적 확장정책에 영향을 미칠 듯

- 우크라이나와의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 등 CIS 지역 내의 중국의 부상  
은 CIS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  
-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움직임은 구소련 붕괴 후 이들 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회복·강화하려는 러시아의 CIS 내 지정학적 확장정책에 심각한 위협을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.
  
-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관계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현 상황을 최대한 슬기롭게 이용·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음.

【모스크바 사무소 제공】